

## 16, 24, 30, 60

말이 달릴 때 네 발이 모두 공중에 뜨는 경우가 있을까? 수천 년이나 이 네발짐승과 함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 사람의 눈은 그 사실을 확인할 만큼 빠르지 못했고 그 때문에 옛날에 그려진 그림 속의 말은 종종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세를 취한다.

에드워드 마이브리지가가 이 문제의 답을 내놓았다. 그는 트랙 옆에 사진기를 연달아 세워놓고 말이 달리면 줄을 당겨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정답은 네 발이 모두 떠 있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까지 인류가 끊임없이 놓치고 있던 ‘지금 이 순간’을 박제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것이었다. 움직임 속의 순간. 순간의 연속. 이들이 기계 속으로 들어가 깜빡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영화가 된다.

영화는 움직임의 환영일 뿐만 아니라 순간의 광택이기도 하다. 영화를 찍고 편집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았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그 광택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비디오 플레이어가 등장한 뒤부터이다.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에서 섹시한 여자 주인공 제시카 래빗의 은밀한 부분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그 부분의 비디오 테이프는 늘어지기 시작한다. 빨리 감기. 느리게 감기. 뒤로 돌리기. 일단 정지. 존재하지 않는 만화 캐릭터의 몸 일부분을 보기 위해 그 고생을 했던 것이다.

디지털 시대가 되자, 순간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스틸 사진의 독재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움직이는 영상 속에 숨겨진 박제된 순간을 찾아나선다. 찰나는 더 이상 찰나가 아니다. 기억의 흔적만을 남기고 사라져 버린 과거의 ‘지금’은 이제 언제나 소환이 가능하다. 1초가 담는 프레임이 16초, 24초, 30초, 60초로 늘어날수록 찾아낼 수 있는 순간들은 더 많아진다.

그 안에서 우린 온갖 낯선 풍경들을 발견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영상이라도 그를 구성하는 찰나의 순간들이 아름답기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정갈한 영상이라도 그 안에 뜻밖의 음란함을 숨기고 있다. 반대로 따분하거나 천박한 영상 속에 뜻밖의 아름다움이 은폐되어 있기도 하다. 느린 눈과 망각 속에 숨어 있던 순간의 프라이버시는 사라졌고 세상은 낯선 짐승들의 사냥터가 되었다. 빨리 감기. 느리게 감기. 뒤로 돌리기. 일단 정지. 빙고!





